

환경정의 연구소 그린인프라 위원회 발족 선언문

그린인프라(Green Infra)는 자연 흐름에 순응하고 동화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얻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기반시설입니다. 공공 주도에 의해 환경 피해와 에너지 과소비를 초래하고 단일 기능 중심의 대규모로 건설하는 기존 회색인프라(Grey Infra)와 그 길을 달리합니다.

그린인프라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산할 수 있는 서로 연계된 순환형 소규모 시설로 만들어집니다. 자원·에너지·토지이용계획의 융합과 자연순환에 기초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해결 방안도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사회·경제 활동의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것입니다. 시민주도와 참여, 그리고 다학제적 협력과 노력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도시 홍수, 탈원전, 미세먼지 및 폭염 등 안전과 환경, 에너지 문제는 회색인프라에 의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원과 에너지 소비형 기반시설과 그 시스템인 회색인프라는 우리의 지속 가능한 삶과 환경정의 실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깨끗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 현세대와 미래세대 사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발생하는 환경 불평등을 해소하고 균형을 맞추는 행동이 환경정의입니다. 그린인프라로의 전환은 이러한 환경정의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아직 그린인프라는 생소합니다. 그 실행과 정착을 위해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인프라 위원회를 발족하여 학계, 공공기관,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 바탕의 물순환, 에너지순환 그린인프라의 도시 적용 모델과 시민주도 거버넌스 모델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과 법,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린인프라 위원회는 폭염과 미세먼지, 도시홍수, 도시녹지,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등 직면한 문제와 그 해결 노력에 대해 그린인프라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접목되어야 하는지 나름의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9. 5. 31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